



Report 사회지표 || 2021년 1월 21일

“한국인 사회의식 심층분석 보고서”

케이스탯

2021년 1월 사회지표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_ 1월, ‘잘못된 방향’ 소폭 우세로 역전
- _ ‘올바른 방향’ 확실히 우위 유지하던 4050세대, 다소 달라져

■ 경제 방향성 평가

- _ 대한민국 경제, ‘잘못된 방향’ 의견 더 많아져

■ 정부 신뢰도

- _ 정부에 대한 신뢰도, 부정평가 우위 지속

■ 정부정책 만족도

- _ 정부정책 만족도, 35%로 역대 최소치 기록

■ 개인 행복도

- _ 어제 하루 ‘걱정 많았다’, 증가세 유지

■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_ 개인 노력으로 계층 상승, ‘불가능하다’ 평가 우위 지속

■ 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

- _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는 응답 소폭 증가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1월 8일(금) ~ 1월 10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리서치 K-패널
유효표본	총 1,094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2.96\%$
가 중 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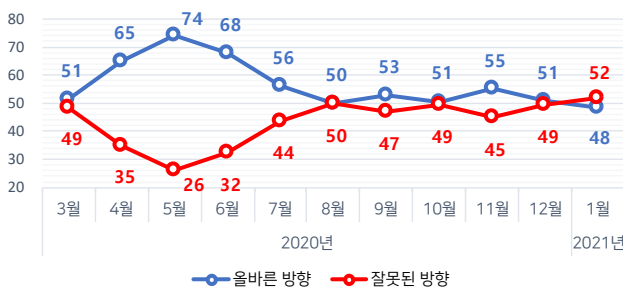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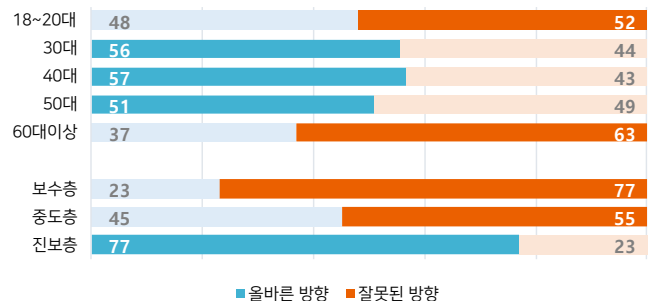
1월, '잘못된 방향' 소폭 우세로 역전

- 대한민국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의견이 작년 3월 조사 이후 처음으로 '잘못된 방향'이 우위로 나타남
 - 지난 2020년 8월 이후부터 근소하게나마 '올바른 방향'이 우세했으나, 2021년 1월에는 역전됨
 -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48% vs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52%로 격차는 4%p로 크지 않음
-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18~20대, 60대이상 △보수층, 중도층 △서울, 인천.경기, 충청권, TK, PK △자영업자, 주부, 학생, 은퇴.무직자 등임
 - '올바른 방향'과 '잘못된 방향'이 공히 50%로 팽팽한 계층은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중사자임
-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3050세대 △진보층 △호남권 등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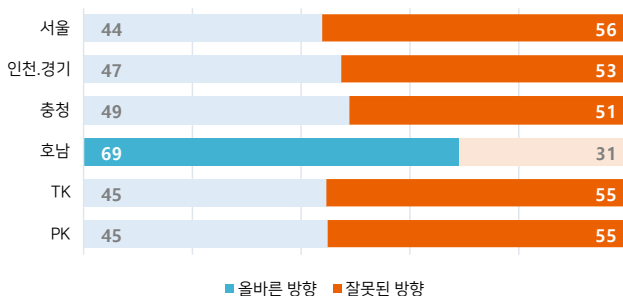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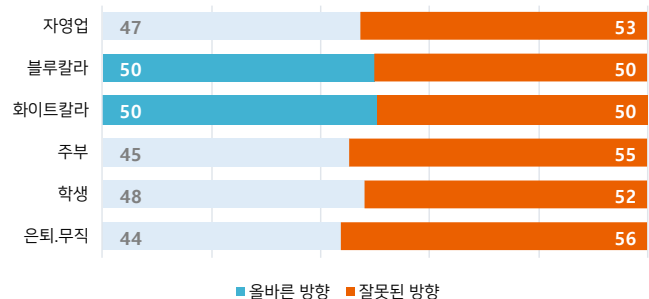
1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연령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1.10조사,단위:%)



1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1.01.10조사,단위:%)



1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1.01.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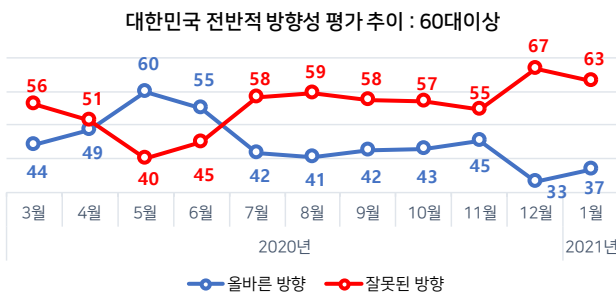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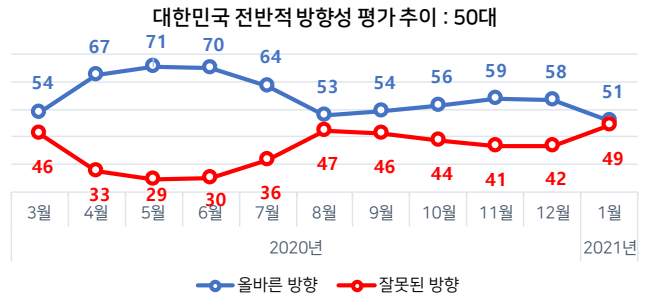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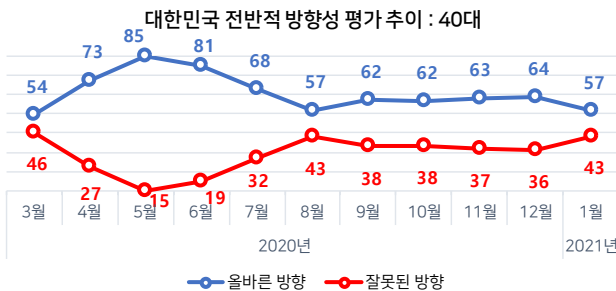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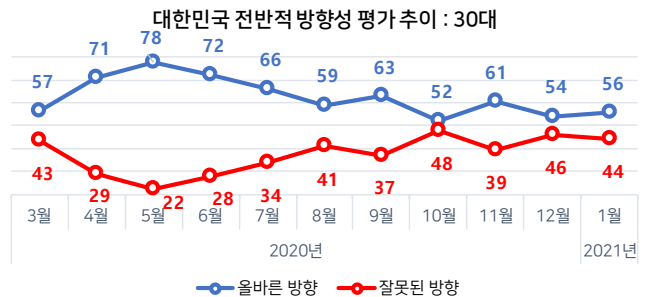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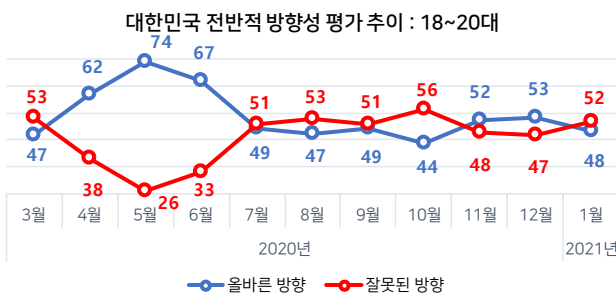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21년 1월 들어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가 '잘못된 방향' 우세로 조사됨
 - ☑ 연말연시 내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 명을 넘는 상황이 지속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이른바 'K 방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결과로 분석됨
 - ☑ 또한 추미에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가 법원의 판결로 뒤집히면서, 여권이 정치적 이유로 사회적 혼란만을 초래했다는 비판적 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 : 정부의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적 불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올바른 방향' 확실히 우위 유지하던 4050세대, 다소 달라져

- 연령별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올바른 방향'과 '잘못된 방향'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을 보여 온 18~20대는 1월에도 마찬가지로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 '잘못된 방향'이 소폭 우세함
 - 60대 이상 연령층은 작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1월에도 이러한 경향이 유지됨
- 주목되는 연령대는 4050세대로, 이들 세대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이 확실한 우위를 보여왔는데 1월 들어 그 경향성이 약화된 모습임
 - 40, 50대 모두 작년 12월에 비해 '올바른 방향' 의견이 7%p 하락함
 - 특히 50대는 '올바른 방향'과 '잘못된 방향'간의 격차가 2%p에 불과함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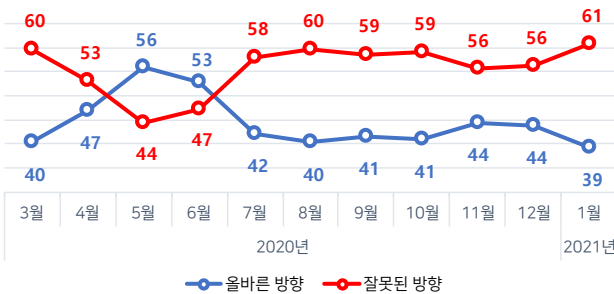
- ☑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 명대를 기록하다 최근에는 급증세가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400명 내외를 보이는 불안한 상황이 유지되면서 국민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짐
 - :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돼도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보도로 확인된 점도 피로감 고조에 일조함
- ☑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피로감'으로 바뀐 상황인데다, 여권발 사회적 혼란이 부각되면서 언제나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4050세대가 다소 태도를 바꾼 것으로 분석됨
 -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이 있는 이후인 2월 조사에서 4050세대가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

경제 방향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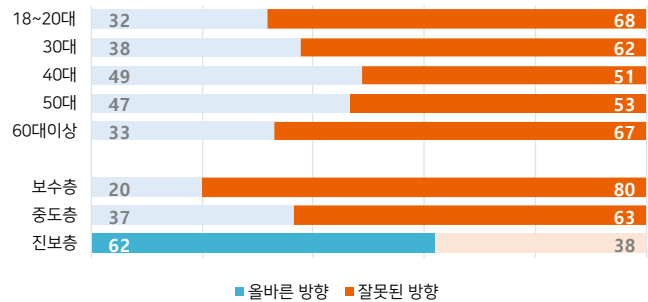
대한민국 경제, '잘못된 방향' 의견 더 많아져

-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 평가는 일곱 달 연속으로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남
 - 2020년 7월, '잘못된 방향'이 우위를 보인 이후 2021년 1월까지 일곱 달 연속으로 부정평가가 우위를 보임
- 특히 1월에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이 전 달에 비해 더 많아지면서 긍정/부정평가 간 격차가 22%p까지 확대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이 우세함
 - '올바른 방향'이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과 호남권 밖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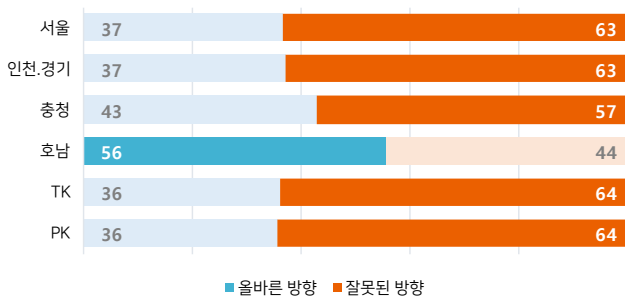
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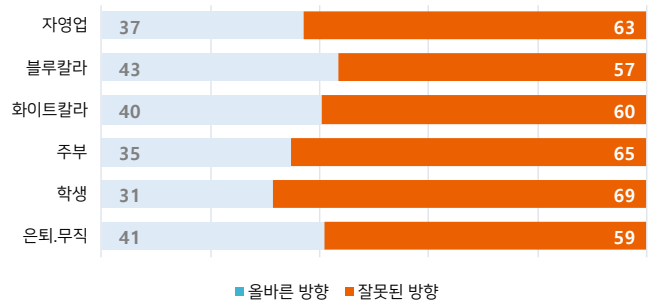
1월 경제 방향성 평가: 연령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1.10조사,단위:%)



1월 경제 방향성 평가: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1.01.10조사,단위:%)



1월 경제 방향성 평가: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1.01.10조사,단위:%)



Kstat Point

-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5인 이상 집합금지 포함) 속에 고용, 소득 등 모든 면에서 국민의 경제적 삶은 악화되고 있음
- ☑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한국판 뉴딜'로 위기 극복 의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희망보다 절망을 보고 있는 상황임
 - : 경제 방향성에 대한 부정평가가 늘어난 것은 이러한 국민인식의 결과임
- ☑ 설 연휴를 앞두고 실시되는 2월 경기조사에서도 지금의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경제 방향성에 대한 국민의 부정평가 역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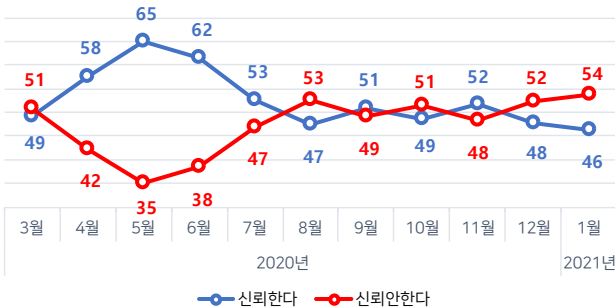
정부 신뢰도

□ 정부에 대한 신뢰도, 부정평가 우위 지속

- 7월 이후 매달 긍정/부정평가 우세가 뒤바뀔 만큼 혼동 양상을 보이던 정부 신뢰도가, 12월에 이어 1월에도 부정평가 우위를 기록함
 - '신뢰한다' 46% vs '신뢰 안한다' 54%로 12월에 비해 소폭 부정평가가 많아짐
- 정부를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2030세대, 60대이상 △보수층, 중도층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TK, PK △전 직업군 등임
 - 현 정부의 확실한 지지층으로 평가받는 화이트칼라 계층에서도 '신뢰한다' 49% vs '신뢰 안한다' 51%로 소폭이지만 부정평가 우위로 역전됨
- '신뢰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4050세대 △진보층 △호남 등에 그침
 - 4050세대의 '신뢰한다'는 의견 역시 12월에 비해 공히 3%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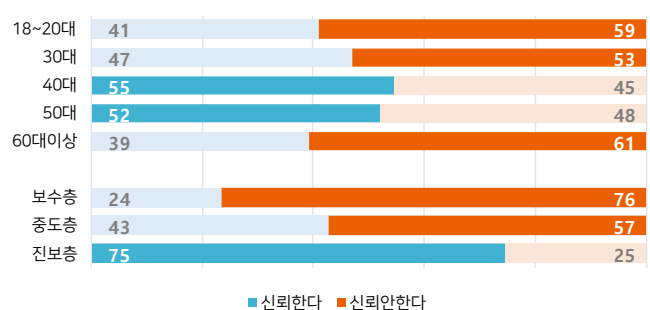
정부 신뢰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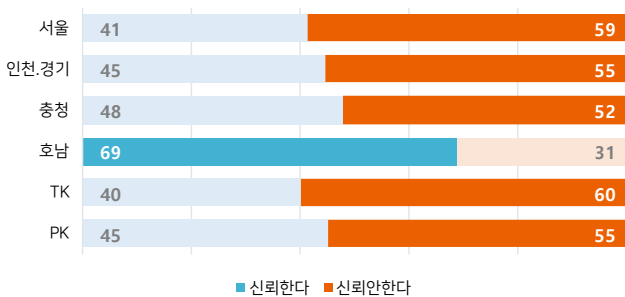
1월 정부 신뢰도 : 연령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1.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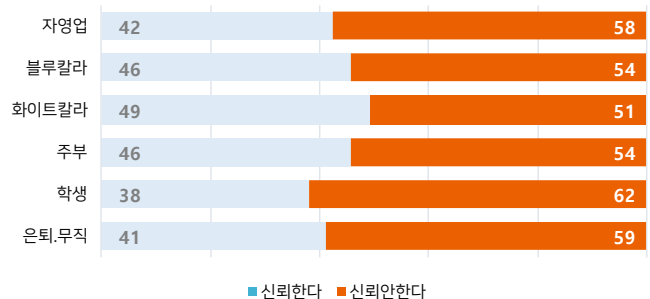
1월 정부 신뢰도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1.01.10조사,단위:%)



1월 정부 신뢰도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1.01.10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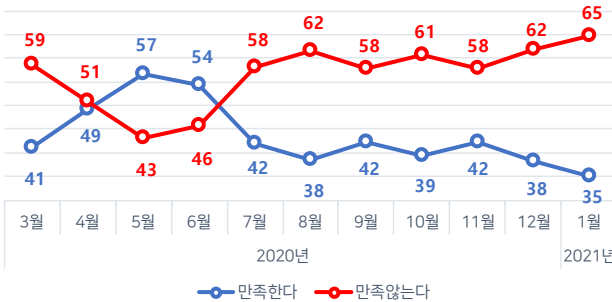
- ☑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지지층으로 평가받는 계층은 4050세대, 진보층, 호남, 화이트칼라 계층 등인데 1월 들어 이들 지지층의 동요가 눈에 띄게 늘어남
- ☑ 각 계층의 정부 신뢰도를 12월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 4050세대, '신뢰한다' 의견 공히 3%p 하락
 - : 호남지역, '신뢰한다' 의견 9%p 하락
 - : 화이트칼라 종사자, '신뢰한다' 의견 4%p 하락하면서 '신뢰 안한다'로 역전
- ☑ 유일하게 진보층만 '신뢰한다'는 의견이 12월 73%에서 75%로 2%p 증가, 견고한 지지를 하는 상황임

정부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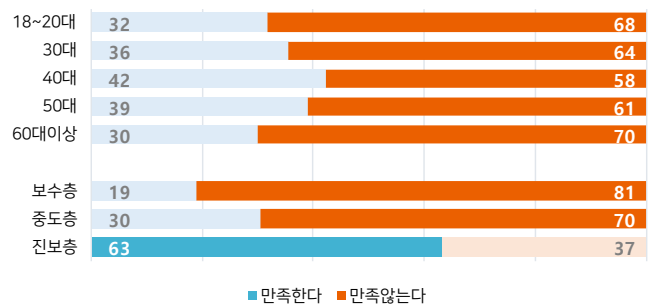
정부정책 만족도, 35%로 역대 최소치 기록

- 1월 정부정책 만족도는 35%에 그쳐, 케이스탯이 정가지표 조사를 시작한 작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정부정책에 대해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일곱 달 연속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음
- '만족 않는다'는 의견은 거의 모든 계층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우세한 계층은 △18~20대, 60대이상 △보수층 △서울, 인천.경기 △자영업자, 주부 등임
- '만족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 △호남권 두 계층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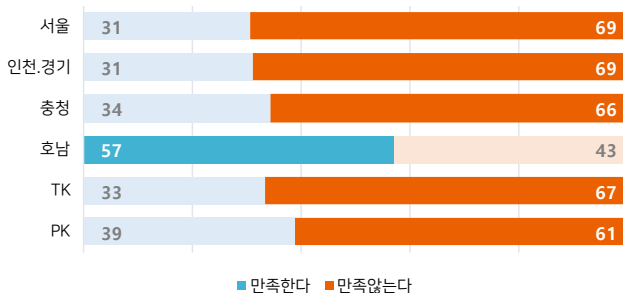
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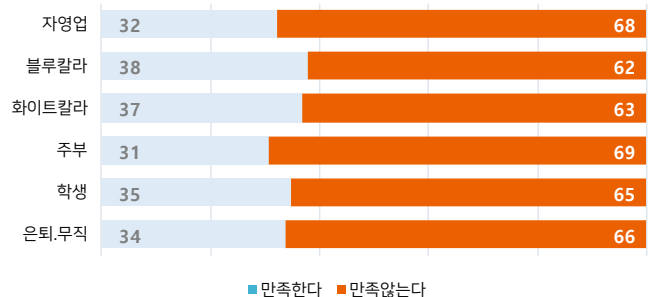
1월 정부정책 만족도 : 연령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1.10조사,단위:%)



1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1.01.10조사,단위:%)



1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1.01.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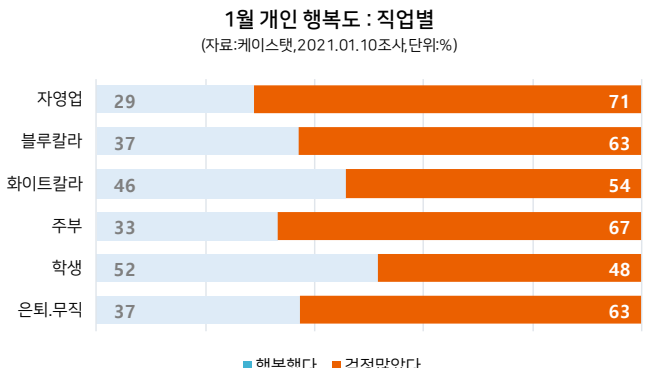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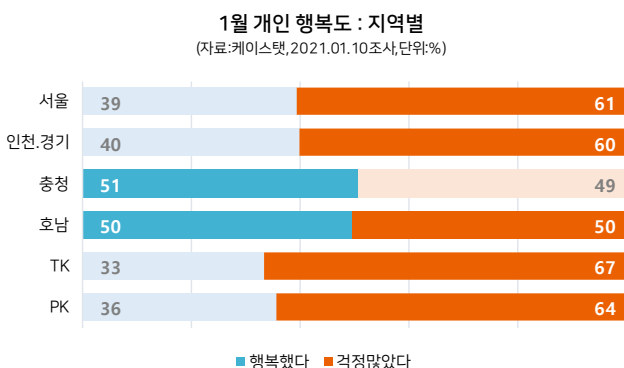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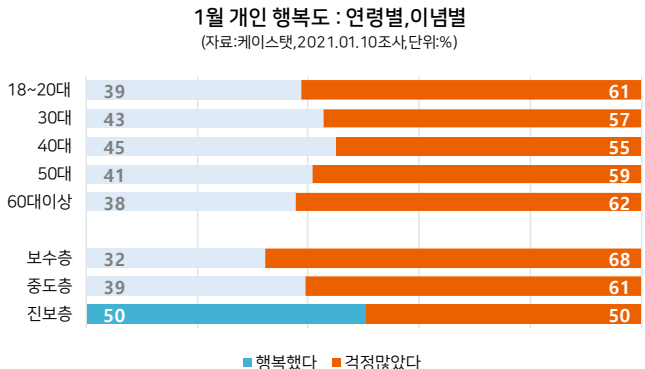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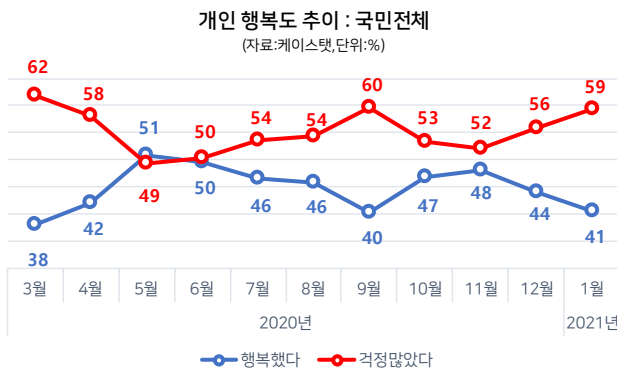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지난달 정부 신뢰도 및 정부정책 만족도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여당은 아젠다-이슈 면에서 수세에 처해 있음
 - : 부동산 가격 폭등,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 국회에서의 여당 독주 등이 부정적 아젠다-이슈들임
- ☑ 이에 비해 정부·여당에 유리한 아젠다-이슈인 '한국판 뉴딜'은 수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임
- ☑ 그나마 현 정부를 지탱해 준 것이 'K 방역'이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고 1월 현재 시점까지 쉽사리 진정되지 못하면서 정부 신뢰도와 정부정책 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 사실상 마지막 남은 아젠다-이슈는 2월 말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계획과 실행 양 측면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정부 신뢰도와 정부정책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개인 행복도

어제 하루 '걱정 많았다', 증가세 유지

-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도는 더욱 하락함
 - 1월 개인 행복도에 있어 어제 하루 '행복했다'는 의견은 41%이고, '걱정 많았다'는 의견은 59%로 조사됨
- 어제 하루 '걱정 많았다'는 의견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우세해, 사실상 모든 계층의 주된 분위기는 '걱정'인 것으로 나타남
- '걱정 많았다'와 '행복했다'는 의견이 50% vs 50%로 팽팽한 계층은 진보층과 호남지역임
 - 충청권은 유일하게 '행복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격차가 2%p에 불과해 사실상 '걱정 많았다'는 의견과 차이가 없음
- '걱정 많았다'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18~20대, 60대이상 △보수층 △TK, PK △자영업자, 주부 등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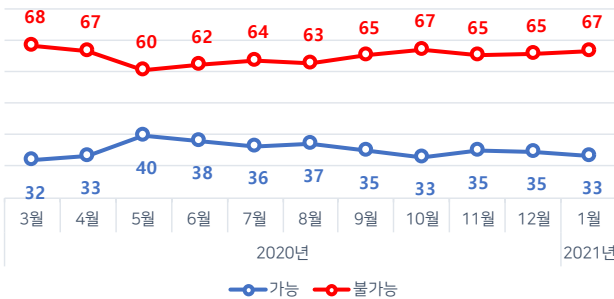
- ☑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속에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국민행복도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음
- ☑ 코로나19 불안감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백신 접종이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제 국민적 관심은 백신 접종에 대한 정부 계획에 집중되고 있음
- ☑ 정부는 1월 말에 우선접종대상자와 연령·계층별 접종 시기, 접종 방법 등을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 계획 발표 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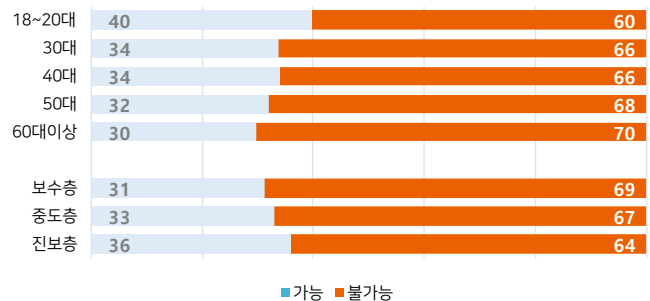
□ 개인 노력으로 계층 상승, '불가능하다' 평가 우위 지속

- 우리 사회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국민인식은 11개월 연속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 1월 조사에서 개인 노력으로 계층 상승 '가능하다'는 응답은 33%에 그치고,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67%로 조사됨
 - 모든 계층에서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우세해, 소속된 계층과 무관하게 이른바 '상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특히 높은 계층은 △60대이상 △보수층 △서울, 인천.경기 △화이트칼라, 주부, 은퇴.무직자 등임
- 상대적으로 '가능하다'는 응답이 높은 계층은 △18~20대 △진보층 △충청권, 호남권 △자영업자, 학생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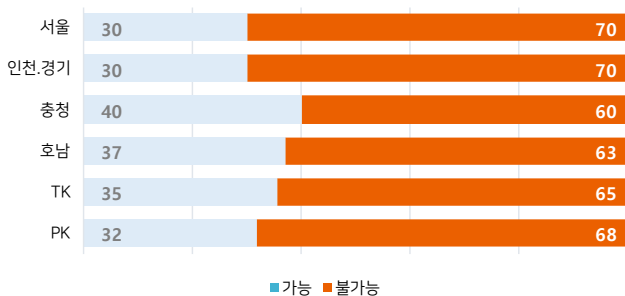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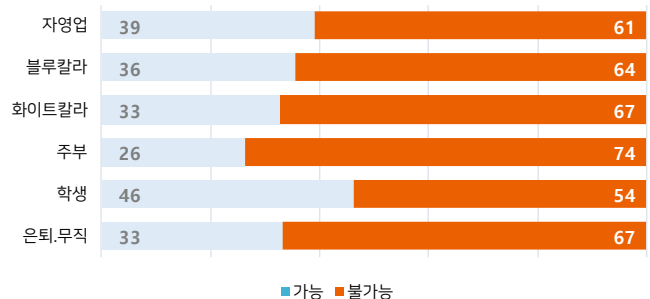
1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연령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1.10조사,단위:%)



1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1.01.10조사,단위:%)



1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1.01.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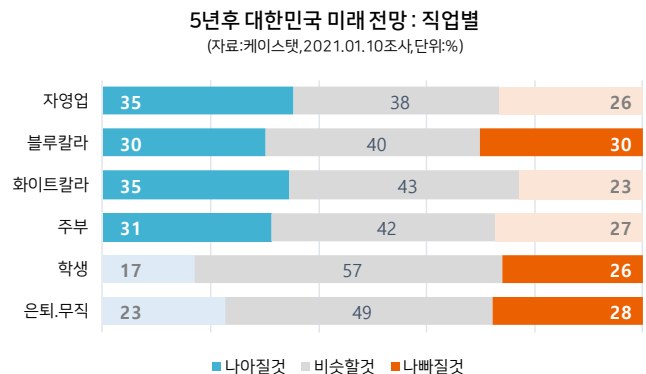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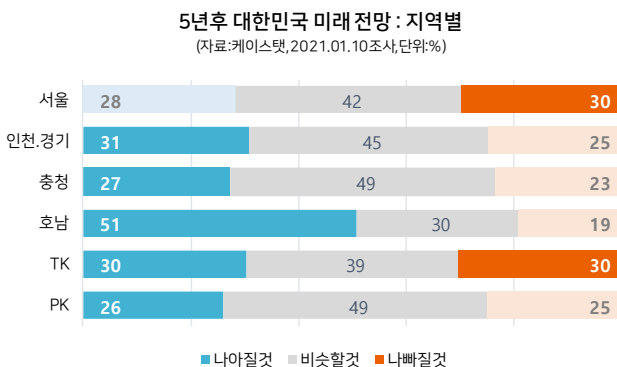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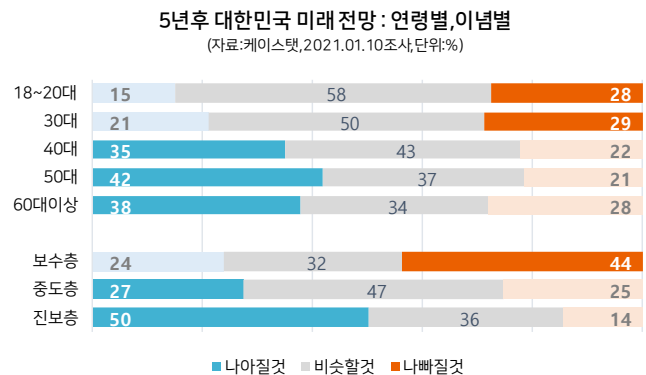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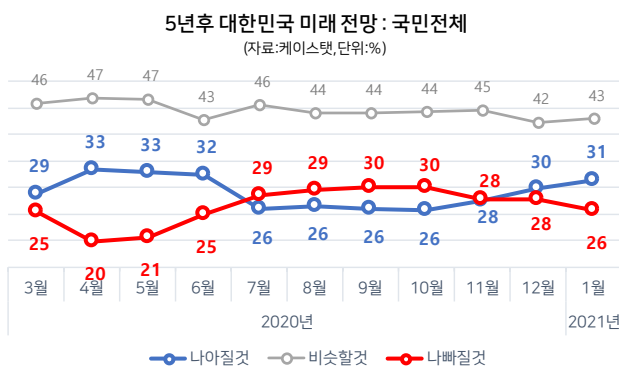
Kstat Point

- ☑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개인 안전'을 위협받고 있지만, '경제적 수입'면에서 부유층은 코로나19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작년 3분기 가계소득 현황을 살펴보면(통계청 자료)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1.1% 감소했지만,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2.9% 증가함
 - : 특히 상위 20% 소득증가는 주로 자산증가 덕분인데, 이는 낮은 금리가 지속되면서 유동성이 확대되고(시중 유통 자금 확대), 이들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됨
 - : 순자산 5분위로 나뉘 상위 20% 자산 분포를 살펴보면 부동산이 77%를 차지하고 있음
- ☑ 코로나19 경제위기는 계층별로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음

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

□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는 응답 소폭 증가

- 5년 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국민적 전망은 12월에 이어 긍정세가 유지됨
 -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43%를 기록한 가운데 '지금보다 나아질 것' 31% vs '지금보다 나빠질 것' 26%로 조사됨
-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4060세대 △중도층, 진보층 △인천.경기, 충청권, 호남권, PK △자영업자, 화이트칼라, 주부 등임
 - '지금보다 나아질 것'과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팽팽한 계층은 △TK, 블루칼라 종사자 등임
-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2030세대 △보수층 △서울 △학생, 은퇴.무직자 계층 등임



Kstat Point

- ☑ 현재 시점의 각종 사회지표는 대부분 부정적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5년 후 대한민국에 희망을 거는 국민들이 소폭이나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이는 현실이 힘든 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더욱 강하게 소망하는 일반적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 하지만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2030세대의 경우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것을 볼 때,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지금의 사회구조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2021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더불어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지금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표출될 것으로 전망됨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21호] 발간 안내

21호는 『신년특집 ②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바라는 희망 사항』이라는 주제로 1월 28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

